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청 보 도 자 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 7. 21.(목) 12:00	배포 일시	2022. 7. 21.(목) 08:30
담당 부서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대유 (042-481-2206)
		담당자	사무관 최유성 (042-481-2214)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담당 부서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책임자	과 장 김대유 (042-481-2206)
		담당자	사무관 최유성 (042-481-2214)
담당 부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B/S팀	책임자	팀 장 이병창 (02-759-4375)
		담당자	차 장 장근호 (02-759-4415)
		담당자	과 장 이서현 (02-759-4416)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022. 7.

통 계 청 · 한 국 은 행

차 례

< 요 약 >

I.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II. 비금융자산 추계 결과	2
① 자산형태별 특징	2
② 제도부문별 특징	6
③ 경제활동별 특징	10

[별첨]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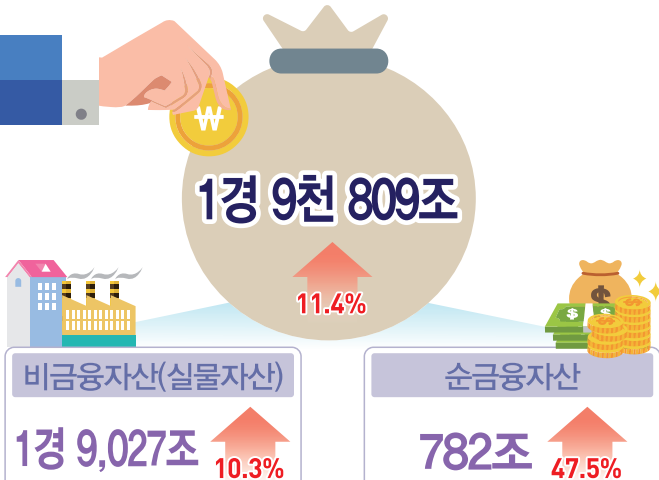
<통계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최근 자금순환통계의 수정(2022.7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기업회계의 자산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자산의 추계방법은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년)의 권고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산의 연도별 가액은 연말 기준의 스톡(stock) 통계이므로 플로(flow) 통계와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물량기준의 스톡 통계는 연쇄가중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만큼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토지자산의 시가평가 작업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최근 연도의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합니다.
7. 모든 수치들은 합계 후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합계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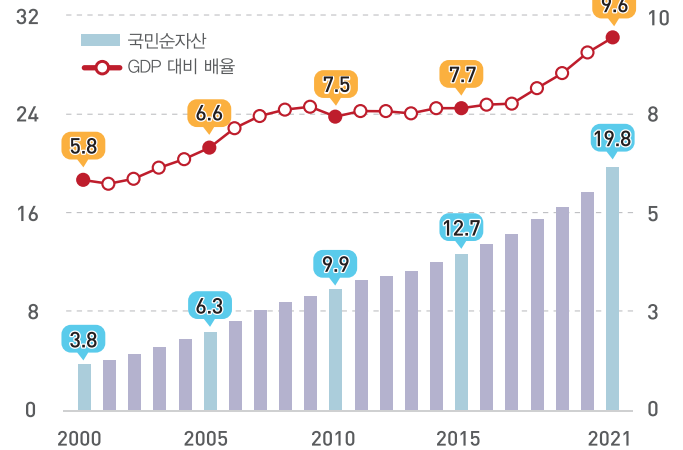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주요 특징

국민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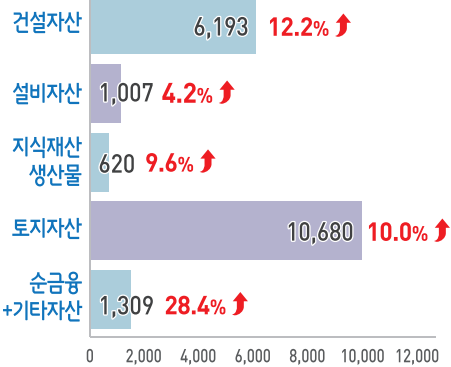
국민순자산의 GDP 대비 배율

(단위: 천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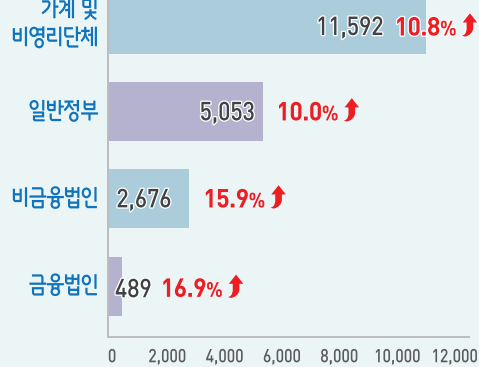
자산형태별 순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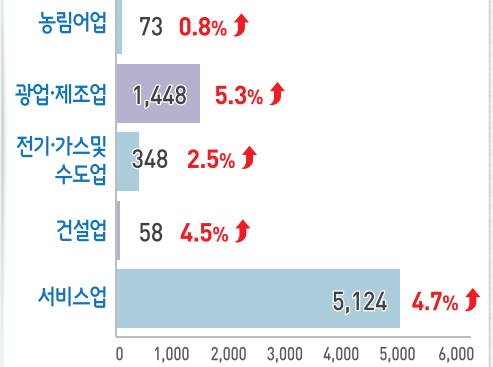
제도부문별 순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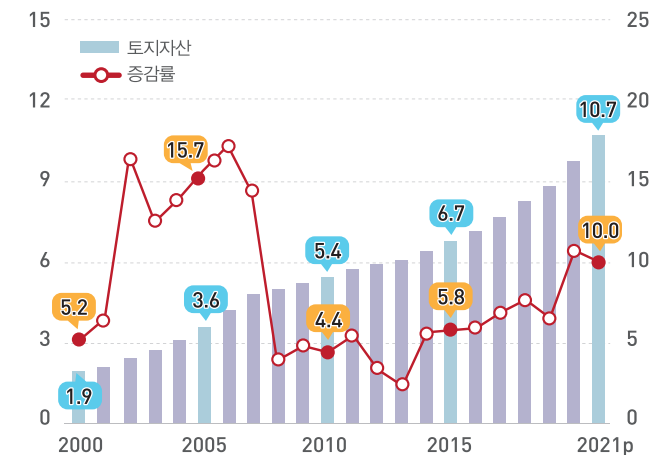
2020년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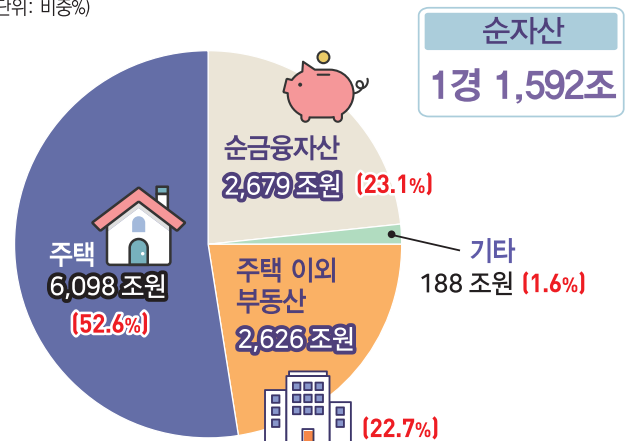
토지자산 추이

(단위: 천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단위: 비중%)



〈 요약 〉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 등에 활용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

총괄

- 2021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2,030조원(+11.4%) 증가한 1경 9,809조원(명목 국내총생산 2,072조원의 9.6배)
 - 비금융자산(순자산 대비 비중: 96.1%)은 1경 9,027조원으로 전년대비 1,778조원(+10.3%) 증가
 - 금융자산(2경 1,073조원)에서 금융부채(2경 29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 대비 비중: 3.9%)은 782조원으로 전년대비 252조원(+47.5%) 증가
- *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6,596억달러: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의 원화 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배)

	2019	2020 ^P	증감액	증감률	2021 ^P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6,569.6 [8.6]	17,778.9 [9.2]	1,209.3	7.3	19,808.8 [9.6]	2,029.9	11.4
비금융자산	15,970.1	17,248.8	1,278.7	8.0	19,026.8	1,778.1	10.3
순금융자산	599.5	530.1	-69.4	-11.6	781.9	251.8	47.5
금융자산	17,235.1	19,183.8	1,948.7	11.3	21,073.0	1,889.2	9.8
금융부채	16,635.6	18,653.7	2,018.1	12.1	20,291.1	1,637.4	8.8

주: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자산형태별 비금융자산

- 2021년말 생산자산은 8,294조원으로 전년대비 806조원(+10.8%) 늘어났으며 비생산자산은 1경 733조원으로 972조원(+10.0%) 증가
- [생산자산] 건설자산은 전년대비 675조원(+12.2%), 설비자산은 41조원(+4.2%), 지식재산생산물은 54조원(+9.6%) 각각 증가
 - [비생산자산] 토지자산은 전년대비 971조원(+10.0%) 증가

비금융자산 규모

(단위: 조원, %)

	2019	2020 ^P	증감액	증감률	2021 ^P	증감액	증감률
비금융자산	15,970.1	17,248.8	1,278.7	8.0	19,026.8	1,778.1	10.3
생산자산	7,155.2	7,487.9	332.7	4.7	8,293.7	805.8	10.8
고정자산	6,736.5	7,050.2	313.6	4.7	7,819.6	769.4	10.9
건설자산	5,285.9	5,518.4	232.5	4.4	6,193.0	674.6	12.2
설비자산	928.5	966.2	37.6	4.1	1,006.8	40.6	4.2
지식재산생산물	522.1	565.6	43.5	8.3	619.8	54.2	9.6
재고자산	418.6	437.7	19.1	4.6	474.1	36.4	8.3
비생산자산	8,814.9	9,760.9	946.0	10.7	10,733.2	972.3	10.0
토지자산	8,762.5	9,709.1	946.7	10.8	10,680.4	971.3	10.0
지하자원	26.9	25.5	-1.4	-5.2	25.0	-0.4	-1.7
입목자산	25.6	26.3	0.7	2.8	27.7	1.4	5.3

제도부문별 순자산

- 2021년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가장 많은 1경 1,592조원을 보유(국민순자산 대비 비중: 58.5%), 다음으로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순
- 금융법인은 전년대비 71조원(+16.9%), 비금융법인은 367조원(+15.9%),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133조원(+10.8%), 일반정부는 459조원(+10.0%) 각각 증가

제도부문별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2019	2020 ^P	증감액	증감률	2021 ^P	증감액	증감률
국 민 순 자 산	16,569.6(100.0)	17,778.9(100.0)	1,209.3	7.3	19,808.8(100.0)	2,029.9	11.4
비 금융 법 인	2,526.8 (15.2)	2,308.6 (13.0)	-218.1	-8.6	2,676.0 (13.5)	367.3	15.9
금 융 법 인	367.6 (2.2)	417.9 (2.4)	50.3	13.7	488.6 (2.5)	70.8	16.9
일 반 정 부	4,374.3 (26.4)	4,593.6 (25.8)	219.2	5.0	5,052.5 (25.5)	459.0	10.0
가계및비영리	9,300.8 (56.1)	10,458.8 (58.8)	1,157.9	12.4	11,591.6 (58.5)	1,132.9	10.8

주: ()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 2021년중 국민순자산의 증가(+2,030조원)요인은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이 317조원, 자산가격 변동 등 거래외요인이 1,713조원

○ 거래요인에 의한 증감(+317조원)은 비금융자산 순취득이 229조원, 금융자산 순취득이 88조원

○ 거래외 증감(+1,713조원)은 비금융자산의 명목보유손익이 1,372조원, 자산량기타증감이 177조원,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이 164조원

국민순자산 증감요인⁵⁾

(단위: 조원, 비중%)

	2018	2019	2020 ^P	2021 ^P
순자산 증감	1,268.9 (100.0)	986.6 (100.0)	1,209.3 (100.0)	2,029.9 (100.0)
거래에 의한 증감	322.4 (25.4)	283.3 (28.7)	304.6 (25.2)	317.1 (15.6)
비금융자산 순취득	236.3 (18.6)	221.5 (22.5)	216.5 (17.9)	229.2 (11.3)
금융자산 순취득 ¹⁾	86.1 (6.8)	61.7 (6.3)	88.1 (7.3)	87.9 (4.3)
거래외 증감	946.5 (74.6)	703.4 (71.3)	904.7 (74.8)	1,712.8 (84.4)
자산량기타증감 ²⁾	110.1 (8.7)	115.1 (11.7)	102.1 (8.4)	177.2 (8.7)
명목보유손익 ³⁾	715.2 (56.4)	538.2 (54.5)	960.1 (79.4)	1,371.6 (67.6)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⁴⁾	121.2 (9.6)	50.0 (5.1)	-157.5 (-13.0)	164.0 (8.1)

주: 1)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의 거래에 의한 증감

2) 간척, 토지의 용도변경,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기록

3)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냄

4) 순금융자산 증감에서 금융자산 순취득을 제외한 금액

5) ()내는 순자산 증감에서 해당 요인에 의한 증감이 차지하는 비중(%)

□ 2021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 9,809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2,072조원)의 9.6배 수준

○ 비금융자산이 1경 9,027조원, 금융자산(2경 1,073조원)에서 금융부채(2경 29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782조원을 기록

*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6,596억달러: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 2021년중 국민순자산은 2,030조원 증가(1경 7,779조원 → 1경 9,809조원)

○ 비금융자산은 1,778조원, 순금융자산은 252조원 증가

국민대차대조표¹⁾²⁾

(단위: 조원, %, 배)

		국내					국외
		비금융 법인	금융 법인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합계	
2020 ^P 년말	비금융자산(A_0)	5,275.5	199.9	3,796.8	7,976.6	17,248.8	-
	순금융자산($B_0=a_0-b_0$)	-2,966.9	218.0	796.8	2,482.2	530.1	-524.9
	금융자산(a_0)	3,167.0	9,500.5	1,983.5	4,532.8	19,183.8	1,624.8
	금융부채(b_0)	6,133.8	9,282.5	1,186.8	2,050.7	18,653.7	2,149.6
	순자산 ($C_0=A_0+B_0$)	2,308.6	417.9	4,593.6	10,458.8	17,778.9	-524.9
		<13.0>	<2.4>	<25.8>	<58.8>	<100.0>[9.2]	
2021 ^P 년중 증감	비금융자산(A_1-A_0)	500.3	20.5	321.2	936.1	1,778.1	-
	순금융자산(B_1-B_0)	-133.0	50.3	137.8	196.8	251.8	-251.4
	금융자산(a_1-a_0)	419.3	848.1	230.2	391.5	1,889.2	175.8
	금융부채(b_1-b_0)	552.3	797.8	92.4	194.8	1,637.4	427.2
	순자산(C_1-C_0)	367.3	70.8	459.0	1,132.9	2,029.9	-251.4
2021 ^P 년말	비금융자산(A_1)	5,775.8	220.4	4,118.0	8,912.7	19,026.8	-
	순금융자산($B_1=a_1-b_1$)	-3,099.8	268.3	934.6	2,678.9	781.9	-776.2
	금융자산(a_1)	3,586.3	10,348.6	2,213.8	4,924.4	21,073.0	1,800.6
	금융부채(b_1)	6,686.2	10,080.3	1,279.2	2,245.4	20,291.1	2,576.8
	순자산 ($C_1=A_1+B_1$)	2,676.0	488.6	5,052.5	11,591.6	19,808.8	-776.2
		<13.5>	<2.5>	<25.5>	<58.5>	<100.0>[9.6]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1 자산형태별 특징

1. 자산규모

□ 2021년말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은 1경 9,02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2배 수준

○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1경 680조원, 56.1%)과 건설자산(6,193조원, 32.5%)이 전체의 88.7% 차지*

*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은 GDP 대비 각각 5.2배 및 3.0배 수준

○ 이 외에 설비자산(1,007조원, 5.3%), 지식재산생산물(620조원, 3.3%) 및 재고자산(474조원, 2.5%) 등이 전체의 11.0% 차지

자산형태별 규모¹⁾²⁾³⁾

(단위: 조원, 배, %)

	2018		2019		2020 ^P		2021 ^P	
비금융자산	15,095.2	[8.0]	15,970.1	[8.3]	17,248.8	[8.9]	19,026.8	[9.2]
생산자산	6,818.0	(45.2)	7,155.2	(44.8)	7,487.9	(43.4)	8,293.7	(43.6)
건설자산	5,051.8	(33.5)	5,285.9	(33.1)	5,518.4	(32.0)	6,193.0	(32.5)
설비자산	888.2	(5.9)	928.5	(5.8)	966.2	(5.6)	1,006.8	(5.3)
지식재산생산물	480.7	(3.2)	522.1	(3.3)	565.6	(3.3)	619.8	(3.3)
재고자산	397.3	(2.6)	418.6	(2.6)	437.7	(2.5)	474.1	(2.5)
비생산자산	8,277.2	(54.8)	8,814.9	(55.2)	9,760.9	(56.6)	10,733.2	(56.4)
토지자산	8,225.6	(54.5)	8,762.5	(54.9)	9,709.1	(56.3)	10,680.4	(56.1)
지하자원	26.3	(0.2)	26.9	(0.2)	25.5	(0.1)	25.0	(0.1)
입목자산	25.3	(0.2)	25.6	(0.2)	26.3	(0.2)	27.7	(0.1)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2. 증감내역

□ 생산자산은 전년대비 806조원(+10.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건설자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명목보유손익에 기인함

○ 건설자산은 주거용건물 245조원(+13.5%), 비주거용건물 223조원(+12.6%), 토목건설 207조원(+10.8%) 각각 증가

○ 설비자산은 전년대비 41조원(+4.2%) 증가하였으며, 기계류가 32조원(+4.7%), 운송장비가 8조원(+3.0%) 증가

○ 지식재산생산물은 연구개발(R&D)(+38조원, +9.6%)을 중심으로 증가

□ 비생산자산은 전년대비 972조원(+10.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토지자산 증가(+971조원, +10.0%)에 기인

○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전년대비 564조원(+14.4%) 증가하고, 비주거용건물 부속토지는 전년대비 201조원(+9.2%) 증가

* 주거용건물(생산자산)과 함께 주택시가총액을 구성하며, 주택 실거래자료 등에 기반한 시가를 반영

○ 그 밖에 구축물부속토지 51조원(+5.4%), 농경지 71조원(+5.7%) 등이 증가

○ 지역별 토지자산* 증감률은 세종(+19.1%), 서울(+17.7%), 부산(+12.5%)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토지자산 가액은 2020년말 기준임. <참고1> 17개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참조

□ 한편, 토지자산(54.6%)과 건설자산(37.9%)이 2021년중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의 92.6% 기여

자산형태별 증감 내역¹⁾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p	증감률	2021 ^p	증감률
비금융자산	1,061.6	874.9	1,278.7	8.0	1,778.1	10.3
생산자산	474.3	337.2	332.7	4.7	805.8	10.8
건설자산	359.5	234.1	232.5	4.4	674.6	12.2
주거용건물	145.2	103.6	104.7	6.1	244.8	13.5
비주거용건물	124.3	85.0	82.2	4.9	222.7	12.6
토목건설	90.0	45.6	45.5	2.4	207.2	10.8
설비자산	41.7	40.3	37.6	4.1	40.6	4.2
운송장비	11.0	16.6	12.1	4.7	8.0	3.0
기계류	31.6	23.0	26.8	4.1	32.4	4.7
육성생물자원	-0.9	0.7	-1.3	-9.9	0.3	2.7
지식재산생산물	42.4	41.4	43.5	8.3	54.2	9.6
연구개발(R&D)	32.9	27.3	27.4	7.4	37.9	9.6
기타지식재산생산물	9.5	14.2	16.1	10.4	16.2	9.5
재고자산	30.6	21.4	19.1	4.6	36.4	8.3
비생산자산	587.3	537.7	946.0	10.7	972.3	10.0
토지자산	586.6	536.9	946.7	10.8	971.3	10.0
건물부속토지	398.3	365.1	762.6	14.3	764.5	12.6
주거용건물부속토지	254.3	231.6	572.2	17.2	563.6	14.4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44.0	133.5	190.3	9.6	200.8	9.2
구축물부속토지	51.0	47.6	46.5	5.1	51.4	5.4
농경지	61.3	55.2	62.3	5.2	71.1	5.7
임야	25.1	20.7	26.2	4.6	29.1	4.9
문화오락용토지	25.2	17.7	20.3	7.2	23.6	7.8
기타토지	25.7	30.6	28.8	5.7	31.6	5.9
지하자원	-0.1	0.5	-1.4	-5.2	-0.4	-1.7
입목자산	0.8	0.3	0.7	2.8	1.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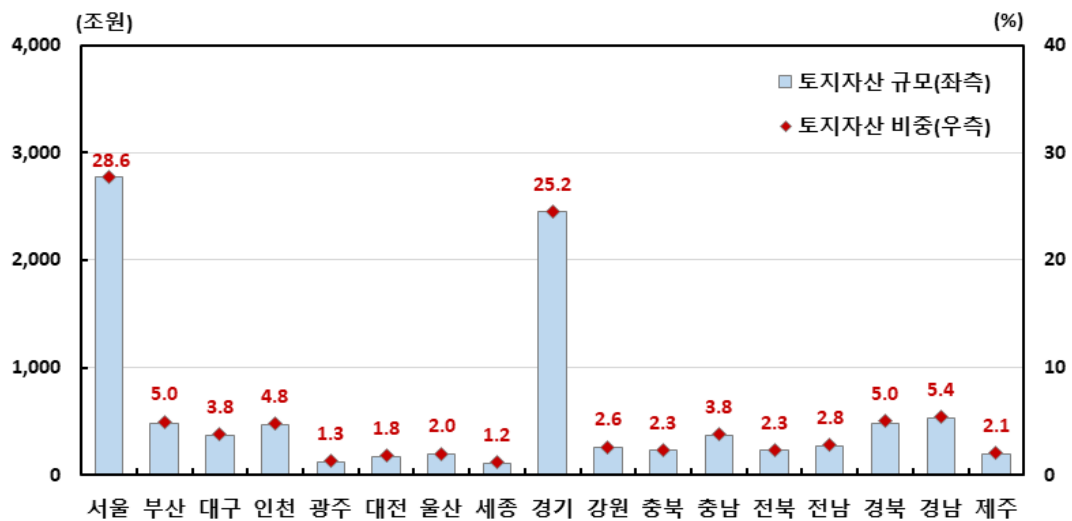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참고1>

17개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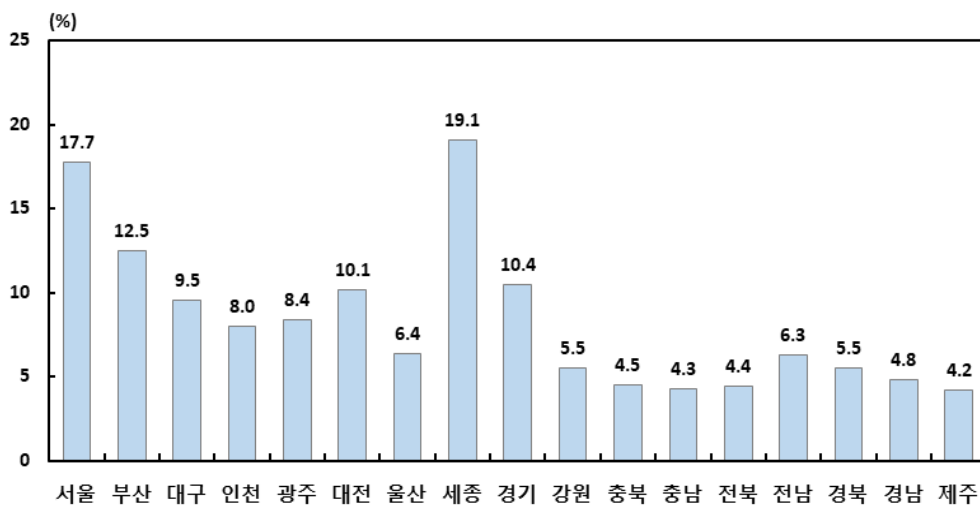
- 2020년말 시도별 토지자산은 서울이 2,778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8.6%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2,449조원(25.2%), 경남 527조원(5.4%), 경북 485조원(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비중(2020년 기준)



- 2020년중 세종이 19.1%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그 외 서울(+17.7%), 부산(+12.5%), 경기(+1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토지자산 증감률(2020년 기준)



② 제도부문별 특징

1. 자산규모

□ 2021년말 제도부문별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8,913조원(46.8%), 비금융법인 5,776조원(30.4%), 일반정부 4,118조원(21.6%), 금융법인 220조원(1.2%)

○ 제도부문 전반에 걸쳐 건설자산(25.2% ~ 44.3%) 및 토지자산(28.4% ~ 73.1%)의 비중이 높은 상황

○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비생산자산 비중(각각 73.2% 및 59.4%)이 높은 반면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은 생산자산 비중(각각 71.2% 및 57.9%)이 높게 나타남

— 금융 및 비금융법인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비주거용건물,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등의 비중이 높은 데 기인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규모¹⁾²⁾³⁾

(단위: 조원,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비금융자산	5,775.8 <30.4>	220.4 <1.2>	4,118.0 <21.6>	8,912.7 <46.8>	19,026.8 <100.0>
생산자산	4,110.5 (71.2)	127.6 (57.9)	1,671.2 (40.6)	2,384.3 (26.8)	8,293.7 (43.6)
건설자산	2,395.2 (41.5)	97.6 (44.3)	1,454.5 (35.3)	2,245.7 (25.2)	6,193.0 (32.5)
설비자산	789.1 (13.7)	8.4 (3.8)	146.4 (3.6)	62.9 (0.7)	1,006.8 (5.3)
지식재산생산물	492.4 (8.5)	21.7 (9.8)	67.1 (1.6)	38.6 (0.4)	619.8 (3.3)
재고자산	433.8 (7.5)	0.0 (0.0)	3.2 (0.1)	37.1 (0.4)	474.1 (2.5)
비생산자산	1,665.3 (28.8)	92.8 (42.1)	2,446.7 (59.4)	6,528.4 (73.2)	10,733.2 (56.4)
토지자산	1,639.2 (28.4)	92.8 (42.1)	2,437.5 (59.2)	6,510.9 (73.1)	10,680.4 (56.1)
지하자원	25.0 (0.4)	0.0 (0.0)	0.0 (0.0)	0.0 (0.0)	25.0 (0.1)
임목자산	1.0 (0.0)	0.0 (0.0)	9.2 (0.2)	17.5 (0.2)	27.7 (0.1)

주: 1) 2021년말 기준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2) < > 내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비중(%)

3) () 내는 제도부문 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2. 증감내역

□ 2021년중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 추이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936조원(+11.7%), 비금융법인 500조원(+9.5%), 일반정부는 321조원(+8.5%) 각각 증가

- 자산가액이 큰 건물 및 토지자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도부문 전반에 걸쳐 높은 증가율(+8.5% ~ +11.7%)을 시현
- 특히 주거용건물(비금융자산 대비 21.8%, 2021년말 기준) 및 토지자산(73.1%) 비중이 높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제도부문 중 가장 높은 자산 증가율(+11.7%, +936조원 증가)을 보임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추이¹⁾²⁾

(단위: 조원, %, 배)

		2018	2019	2020 ^p	증감액	2021 ^p	증감액	증감률
비 금 용 법 인	비금융자산	4,706.6 [2.5]	4,962.5 [2.6]	5,275.5 [2.7]	313.0	5,775.8 [2.8]	500.3	9.5
	생산자산	3,427.0	3,590.1	3,752.4	162.3	4,110.5	358.2	9.5
	건설자산	1,973.5	2,056.6	2,140.1	83.5	2,395.2	255.1	11.9
	설비자산	707.9	733.3	761.0	27.7	789.1	28.1	3.7
	지식재산생산물	380.6	415.1	449.7	34.6	492.4	42.7	9.5
	재고자산	365.0	385.1	401.6	16.5	433.8	32.2	8.0
	비생산자산	1,279.6	1,372.4	1,523.1	150.8	1,665.3	142.1	9.3
	토지자산	1,252.4	1,344.6	1,496.7	152.1	1,639.2	142.5	9.5
	지하자원	26.3	26.9	25.5	-1.4	25.0	-0.4	-1.7
	입목자산	0.9	0.9	0.9	0.0	1.0	0.1	8.2
금 용 법 인	비금융자산	176.2 [0.1]	187.2 [0.1]	199.9 [0.1]	12.7	220.4 [0.1]	20.5	10.3
	생산자산	105.1	110.4	115.5	5.1	127.6	12.1	10.5
	건설자산	80.4	83.9	87.2	3.3	97.6	10.4	11.9
	설비자산	8.6	8.7	8.5	-0.2	8.4	-0.1	-1.6
	지식재산생산물	16.1	17.8	19.8	2.0	21.7	1.9	9.6
	재고자산	-	-	-	-	-	-	-
	비생산자산	71.1	76.7	84.4	7.6	92.8	8.4	9.9
	토지자산	71.1	76.7	84.4	7.6	92.8	8.4	9.9
	지하자원	-	-	-	-	-	-	-
	입목자산	-	-	-	-	-	-	-

(단위: 조원, %, 배)

		2018	2019	2020 ^P	증감액	2021 ^P	증감액	증감률
일 반 정 부	비금융자산	3,440.5 [1.8]	3,622.0 [1.9]	3,796.8 [2.0]	174.8	4,118.0 [2.0]	321.2	8.5
	생산자산	1,383.4	1,443.1	1,500.8	57.7	1,671.2	170.4	11.4
	건설자산	1,213.7	1,258.4	1,301.5	43.0	1,454.5	153.0	11.8
	설비자산	110.3	123.2	134.0	10.8	146.4	12.4	9.3
	지식재산생산물	55.8	58.0	61.6	3.6	67.1	5.5	8.9
	재고자산	3.6	3.4	3.7	0.3	3.2	-0.5	-14.7
	비생산자산	2,057.1	2,178.9	2,296.0	117.1	2,446.7	150.8	6.6
	토지자산	2,048.6	2,170.2	2,287.0	116.8	2,437.5	150.5	6.6
	지하자원	-	-	-	-	-	-	-
	입목자산	8.4	8.7	8.9	0.3	9.2	0.3	3.0
가 계 및 비 영 리 단 체	비금융자산	6,771.9 [3.6]	7,198.4 [3.7]	7,976.6 [4.1]	778.2	8,912.7 [4.3]	936.1	11.7
	생산자산	1,902.4	2,011.5	2,119.2	107.7	2,384.3	265.1	12.5
	건설자산	1,784.2	1,887.0	1,989.6	102.7	2,245.7	256.1	12.9
	설비자산	61.4	63.3	62.7	-0.6	62.9	0.2	0.3
	지식재산생산물	28.2	31.2	34.5	3.3	38.6	4.1	11.9
	재고자산	28.7	30.1	32.4	2.4	37.1	4.7	14.4
	비생산자산	4,869.4	5,186.9	5,857.4	670.5	6,528.4	671.0	11.5
	토지자산	4,853.4	5,170.9	5,841.0	670.1	6,510.9	669.9	11.5
	지하자원	-	-	-	-	-	-	-
	입목자산	16.0	16.0	16.4	0.4	17.5	1.1	6.4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참고2>

제도부문별 국민순자산(순금융자산 포함)

□ 제도부문별로는 2021년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가장 많은 순자산인 1경 1,592조원을 보유(국민순자산의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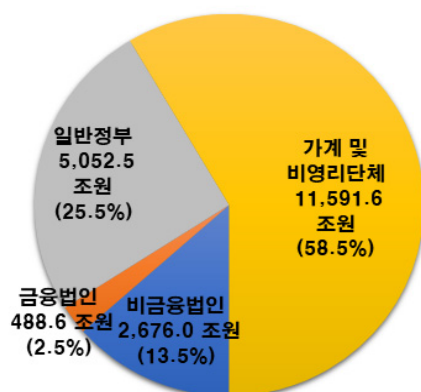
- 다음으로 일반정부 5,053조원(25.5%), 비금융법인기업 2,676조원(13.5%), 금융법인기업이 489조원(2.5%)의 순자산을 각각 보유

□ 2021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 금융법인은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비금융법인은 순금융자산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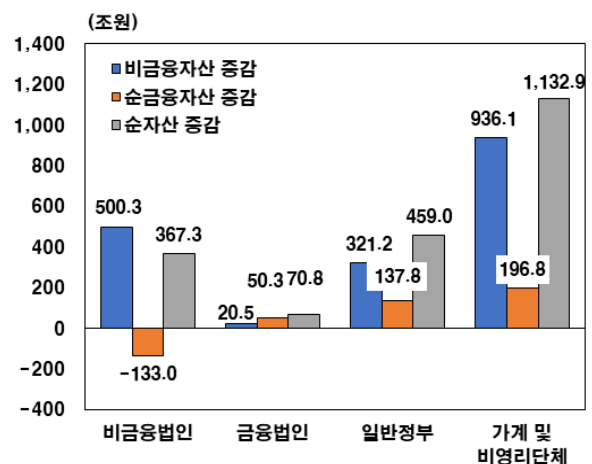
- 2021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133조원 증가(비금융자산 +936조원, 순금융자산 +197조원)
- 일반정부 순자산은 459조원 증가(비금융자산 +321조원, 순금융자산 +138조원)
- 비금융법인 순자산은 367조원 증가(비금융자산 +500조원, 순금융자산 -133조원*) 하였으며 금융법인의 순자산도 71조원 증가(비금융자산 +20조원, 순금융자산 +50조원)

*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금융자산)가 176조원 증가하고, 현금 및 예금(금융자산)이 131조원 증가하였으나 차입금(금융부채)이 전년대비 179조원 증가하였고, 금융부채로 표시되는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국내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73조원 증가

2021년말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2021년중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③ 경제활동별 특징*

* 경제활동별 총고정자본형성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가용시차가 있어 2020년말 시점까지 발표하며, 고정자산(건설,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자산)에 대하여만 작성됨

□ 2020년말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 5,124조원(72.7%), 광업·제조업 1,448조원(20.5%), 전기·가스 및 수도업 348조원(4.9%), 농림어업 73조원(1.0%), 건설업 58조원(0.8%) 등으로 나타남

○ 전산업 기준으로 2020년중 고정자산이 4.7% 증가한 가운데 광업·제조업 5.3%(1,375조원 → 1,448조원), 서비스업이 4.7%(4,895조원 → 5,124조원), 건설업 4.5%(55조원 → 58조원) 증가

— 광업·제조업은 컴퓨터·전자, 화학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부동산,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을 중심으로 증가

경제활동별 자산규모¹⁾²⁾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증감률	2020 ^p	증감률
전 산 업	5,977.0 (100.0)	6,420.7 (100.0)	6,736.5 (100.0)	4.9	7,050.2 (100.0)	4.7
농 립 어 업	68.2 (1.1)	70.0 (1.1)	72.3 (1.1)	3.4	72.9 (1.0)	0.8
광 업 · 제 조 업	1,210.3 (20.2)	1,307.1 (20.4)	1,375.0 (20.4)	5.2	1,448.0 (20.5)	5.3
(컴퓨터·전자)	345.9 (5.8)	391.1 (6.1)	425.4 (6.3)	8.8	468.7 (6.6)	10.2
(화 학)	222.8 (3.7)	241.2 (3.8)	252.9 (3.8)	4.9	262.2 (3.7)	3.7
전기·가스 및 수도업 ³⁾	314.1 (5.3)	330.0 (5.1)	339.0 (5.0)	2.7	347.6 (4.9)	2.5
건 설 업	50.0 (0.8)	53.2 (0.8)	55.3 (0.8)	4.0	57.7 (0.8)	4.5
서 비 스 업	4,334.5 (72.5)	4,660.5 (72.6)	4,895.0 (72.7)	5.0	5,124.0 (72.7)	4.7
(부 동 산 업)	1,779.7 (29.8)	1,947.8 (30.3)	2,064.3 (30.6)	6.0	2,181.5 (30.9)	5.7
(공공행정 및 국방)	1,088.2 (18.2)	1,154.2 (18.0)	1,202.2 (17.8)	4.2	1,247.0 (17.7)	3.7
(지식기반서비스업 ⁴⁾)	406.0 (6.8)	430.2 (6.7)	450.5 (6.7)	4.7	470.0 (6.7)	4.3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포함
 4)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참고3>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본스톡 가액은 재평가된 잔존가치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자산의 실제 생산능력은 잔존가치와는 차이가 있음. 자본서비스물량이란 자산의 생산 기여분으로 실제 생산 능력을 반영하며, 실무적으로는 하위 자산별 생산능력치인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사용자 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2021년중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3.7%로 전년보다 0.1%p 하락

○ 지식재산생산물이 5.7%, 설비자산이 4.3%, 건설자산이 2.7% 각각 증가하였으며, 설비자산(전년대비 +0.6%p)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전년보다 증가율이 낮아짐

— 구성항목별로는 건설자산이 1.4%p, 설비자산이 1.3%p, 지식재산생산물이 1.1%p씩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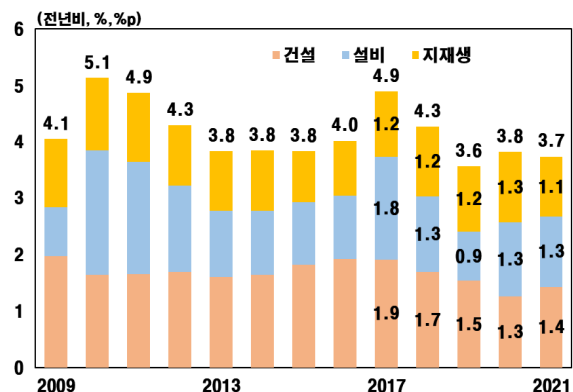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¹⁾

(단위: %, %p)

	2020 ^P (A)	2021 ^P (B)	B-A
고정자산 전체	3.8	3.7	-0.1
건설자산	2.9	2.7	-0.2
설비자산	3.7	4.3	+0.6
지식재산생산물	6.0	5.7	-0.3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세부자산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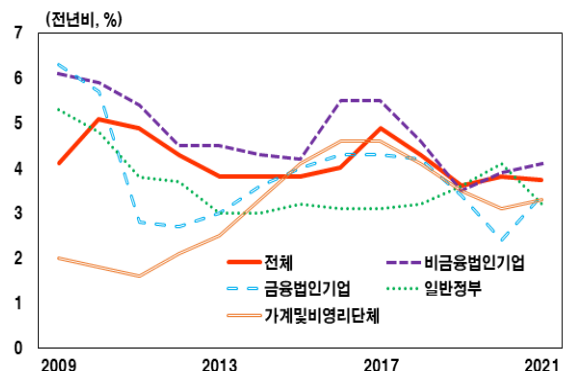
□ 제도부문별로 살펴보면 비금융법인 4.1%, 금융법인 3.4%, 가계 및 비영리단체 3.3% 순으로 증가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¹⁾

(단위: %, %p)

	2020 ^P (A)	2021 ^P (B)	B-A
경제전체	3.8	3.7	-0.1
비금융법인	3.9	4.1	+0.2
금융법인	2.4	3.4	+1.0
일반정부	4.1	3.2	-0.9
가계및비영리단체	3.1	3.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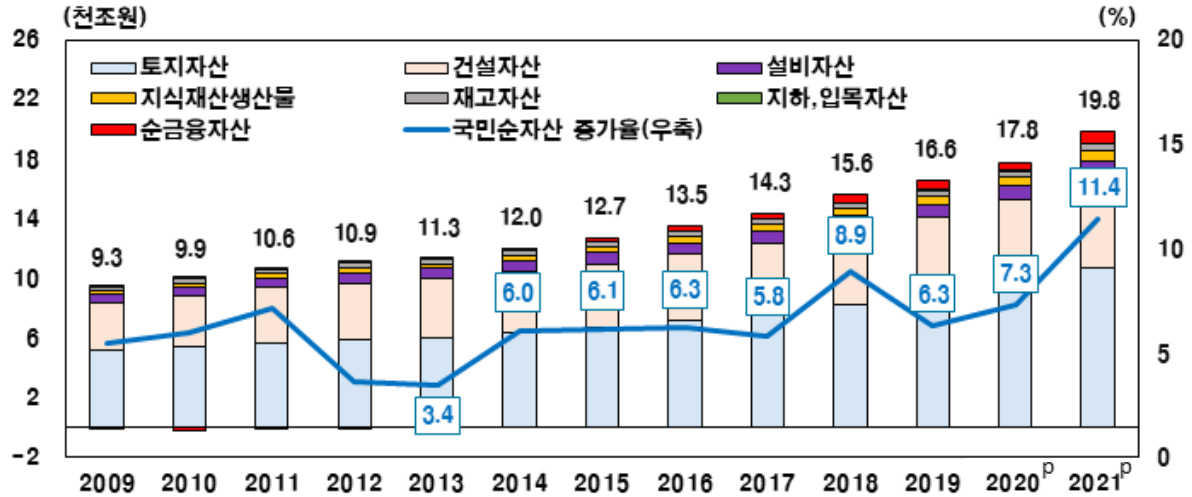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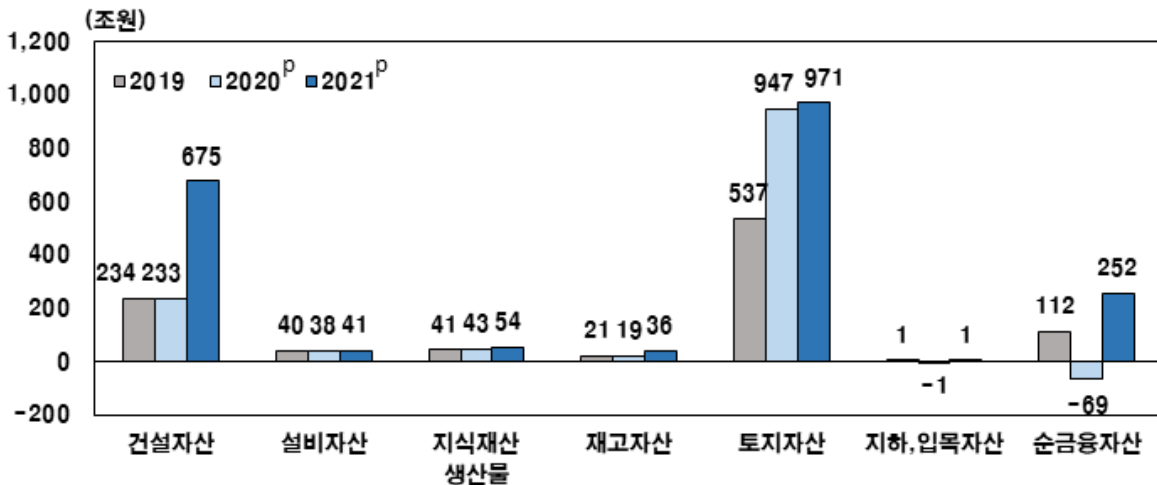
<참고4>

국민대차대조표 주요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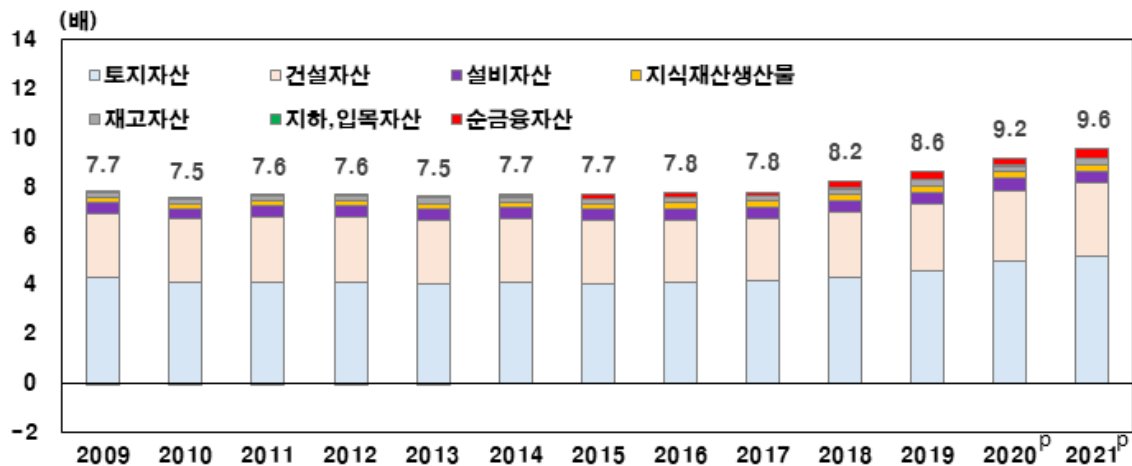
1. 국민순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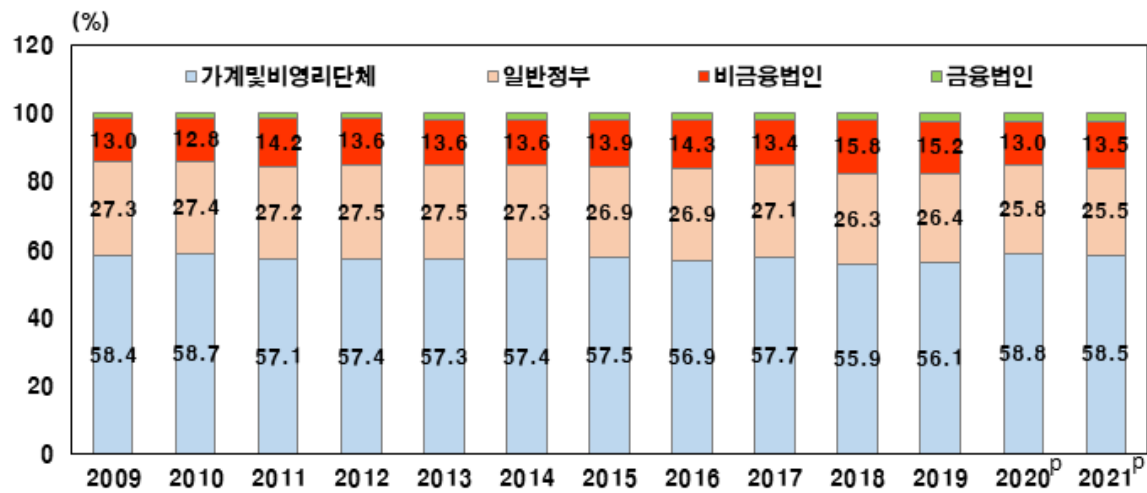
2. 자산별 증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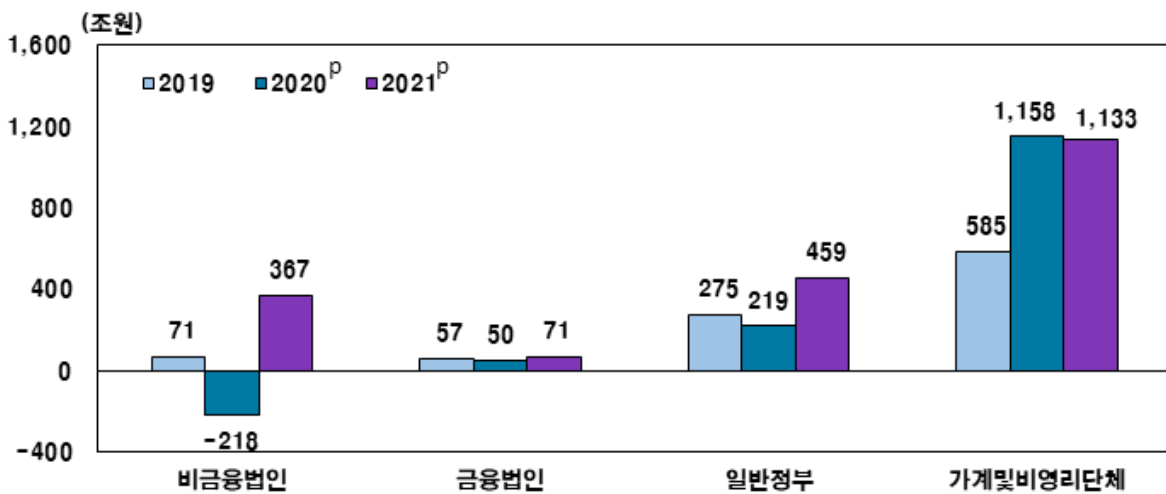
3. 국민순자산/GDP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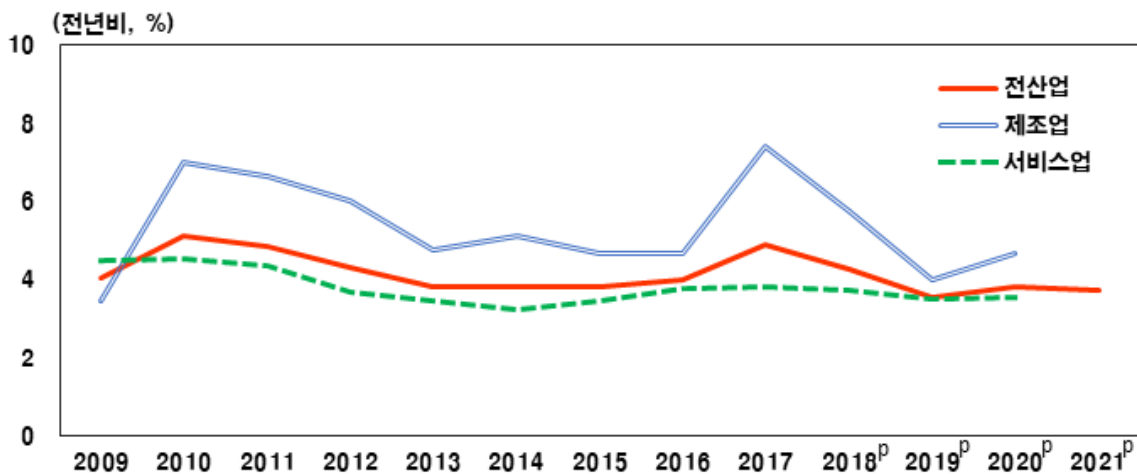
4. 제도부문별 순자산 비중



5.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6.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참고5>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s)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국부)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 등에 활용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해당
 -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 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 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 자산
 -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 비금융자산계정: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 제도부문계정: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 경제활동계정: 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 순자본스톡(자산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액으로,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 자산의 마모·폐기액, 가격 하락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본스톡은 회계적 잔존가치와 달리 보유중인 자산의 연령효율을 감안하는 등 현 시점의 생산능력에 따라 평가한 것임
 -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의 저하분을 모두 감안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되는 스톡 통계임
- 순자본스톡이나 생산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자본투입 물량도 작성
 - 자본투입물량은 과거 투자 활동으로 축적된 생산자본스톡을 실제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자본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측한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으로 기록됨

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이용하며,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의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임목 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다만,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과 임목 자산)은 순자본스톡만 계산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취득, 마모, 폐기,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는 것임
 - 특히 자산의 폐기확률, 생산능력 저하, 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자산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를 장기 투자시계열과 각각 결합하여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을 계산함
- ① 연령-생존함수와 총자본스톡
- 연령-생존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자산이 폐기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총자본스톡)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됨
- ②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 연령-효율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가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노동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자본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자본서비스라고 말함. 예를 들어 주택은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
 - 과거 투자시계열에 연령-폐기함수와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총자산의 생산능력(생산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③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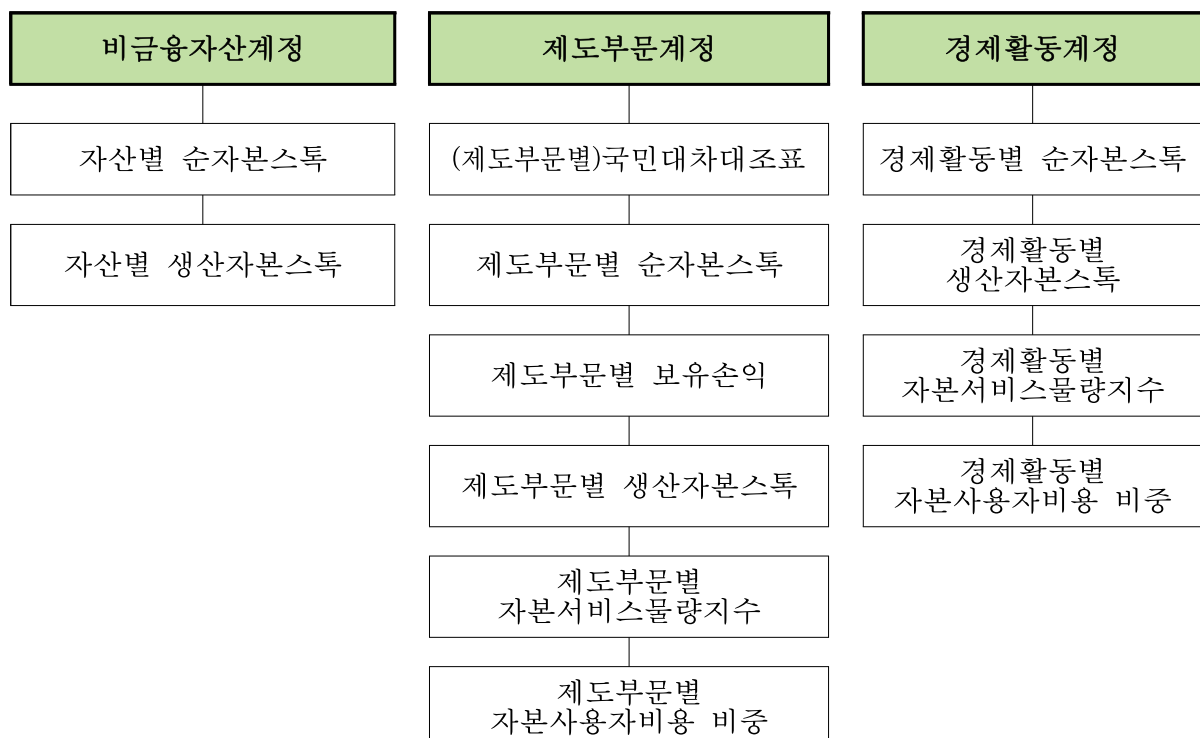
- 자산의 가격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연령이 늘어나면 (미래)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락함(감가상각)
 - 특히, (미래)수익은 자본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령-가격함수는 연령-효율함수에 연동하여 산출됨
 - 연령-가격함수와 투자시계열을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즉 순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 물량가격법은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물량(수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
 - 주택시가총액은 주거용건물(영구재고법)과 주거용건물부속토지(물량가격법)의 가액으로 구성되며,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주택 실거래자료 등에 기반한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
-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의 권고에 따라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계산
- 광물과 에너지자원에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자원지대)은 지하자원이 채굴되지 않은 매장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채굴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 입목자산은 아직 벌목되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재 시장거래가격에서 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후 입목상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별 스톡 이외에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을 계산
- 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본스톡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톡가액을 추계

-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서비스물량을 지칭하는데, 자본서비스물량은 자본 투입물량으로 측정함
 -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특정 경제주체(경제주체별) 또는 특정 경제활동을 구성(경제활동별)하는 하위 자산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형태로 계산한 것임
 - 자산의 사용자비용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자본재를 임차할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자본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기회비용), 자본재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감가상각)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함
 -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와 연쇄통크비스트 지수 기준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제공

5. 작성주기와 공표 시점

-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연간기준으로 공동 작성하며 매년 7월 중순경 공표

6. 주요 발표 통계



[별첨]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 목 차 >

1. 국민순자산(國富)은 명목 GDP의 9.6배
2.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 상승
3. 부동산 자산 비중의 지속적 확대
4. 생산자산 증가세 확대
5. 2021년 국민순자산 증가는 명목보유손익에 주로 기인
6. 순금융자산의 큰 폭 증가
7.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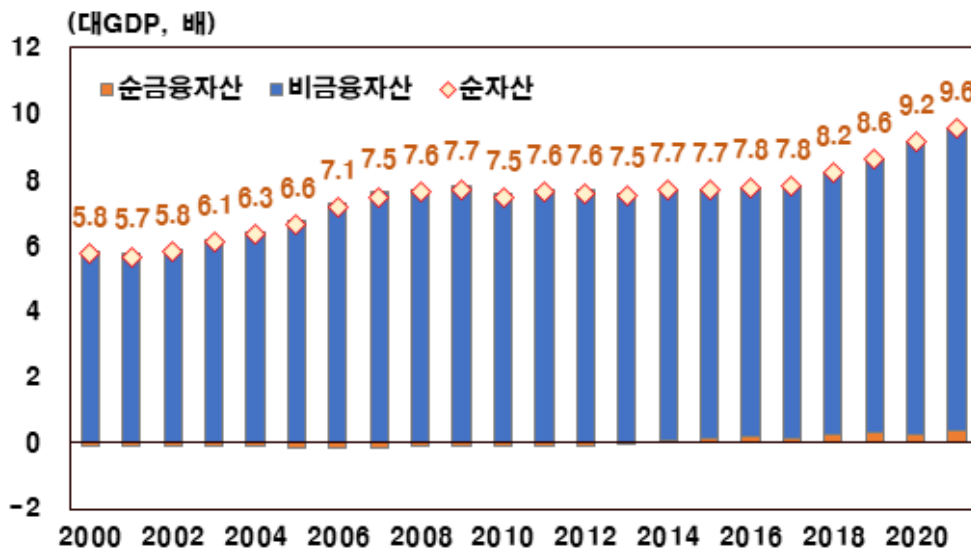
① 국민순자산(國富)은 명목GDP의 9.6배

□ 2021년말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9,809조원)은 명목 국내총생산(2,072조원) 대비 9.6배로 전년(9.2배)에 비해 동 배율이 상승

○ 2021년중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비생산자산이 늘어난 가운데, 순대외금융 자산*이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거주자의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대외금융자산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국내 주가 상승폭 둔화 등에 기인해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전년말에 비해 1,724억달러 증가 (2019년 5,178억달러 → 2020년 4,872억달러 → 2021년 6,596억달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명목) 배율



주: 2000~2007년중 순금융자산은 국제투자대조표(IIP)에 나타난 순대외금융자산의 원화환산액임

국민순자산/GDP(명목) 배율의 구성내역 변화

(단위: 배,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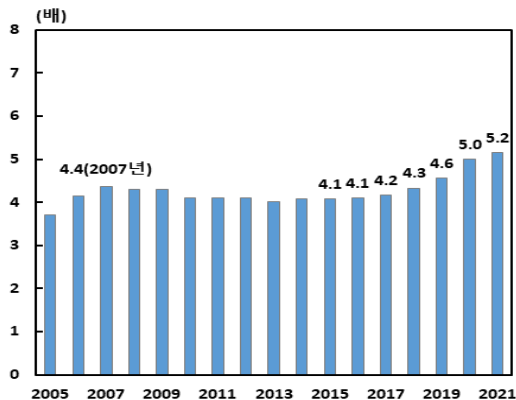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P	증감(p)	2021 ^P	증감(p)
국민순자산	7.80	8.21	8.61	9.16	0.55	9.56	0.40
비금융자산	7.64	7.95	8.30	8.89	0.59	9.18	0.30
생산자산	3.46	3.59	3.72	3.86	0.14	4.00	0.15
비생산자산	4.19	4.36	4.58	5.03	0.45	5.18	0.15
순금융자산	0.15	0.26	0.31	0.27	-0.04	0.38	0.10

②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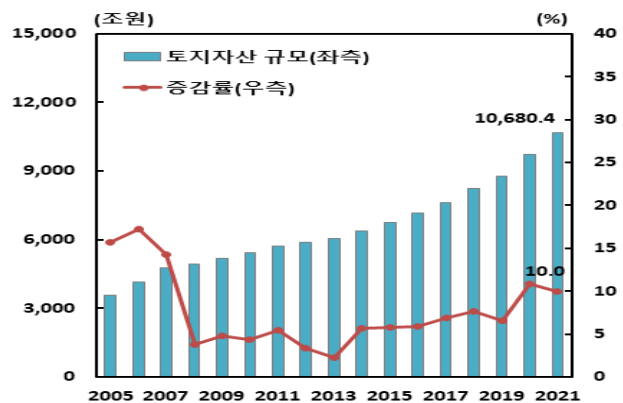
□ 2021년말 토지자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은 5.2배를 기록하여 전년(5.0배)에 비해 상승

○ 이는 2021년중 GDP(명목기준)는 전년에 비해 6.7% 늘어났지만 토지자산은 10.0% 증가한 데 기인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참고>

2020년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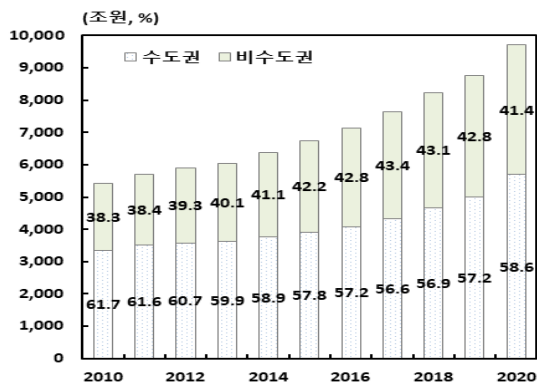
□ 2020년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58.6%)은 서울 등 증가로 전년에 비해 확대

*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 56.9%(18년) → 57.2%(19년) → 58.6%(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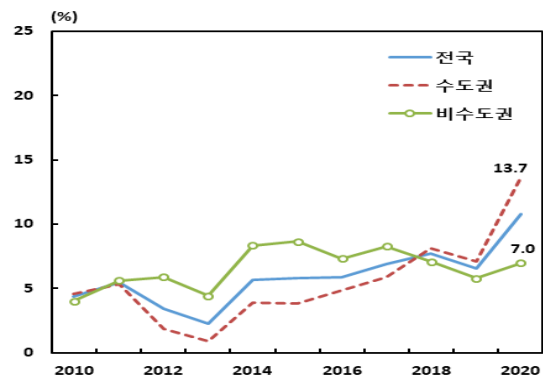
□ 2020년 토지자산의 수도권 증가율은 13.7%로 비수도권 증가율(7.0%)을 상회

○ 2000년대 수도권 증가율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가 2011년 이후 역전되었으나 2018년 이후 수도권이 다시 높게 나타남

수도권 및 비수도권 토지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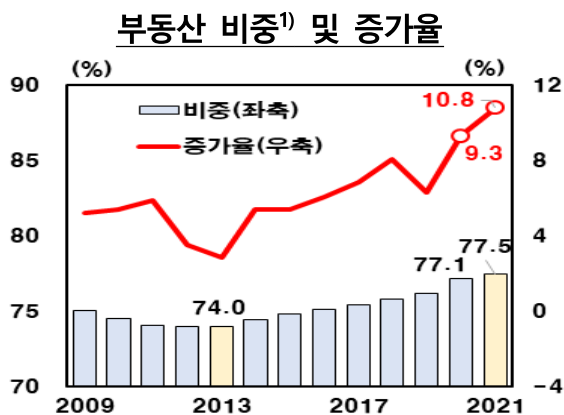
수도권 및 비수도권 토지자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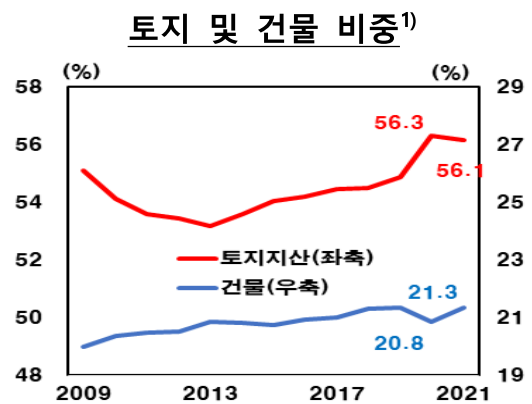
③ 부동산 자산 비중의 지속적 확대

□ 2021년중 부동산(토지+건물)이 2020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9.3% → +10.8%)를 이어감에 따라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77.1% → 77.5%)

- 토지자산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10.8% → +10.0%)를 보였으나 2021년중 건물(주거용건물+비주거용건물) 증가세가 가팔라지며(+5.5% → +13.0%) 토지자산 비중은 소폭 감소(56.3% →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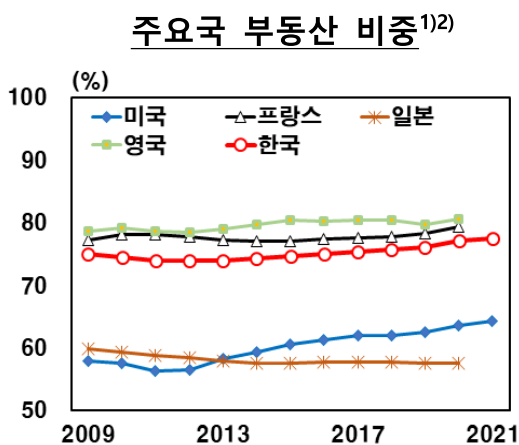


주: 1) 부동산/비금융자산



주: 1) 각각 비금융자산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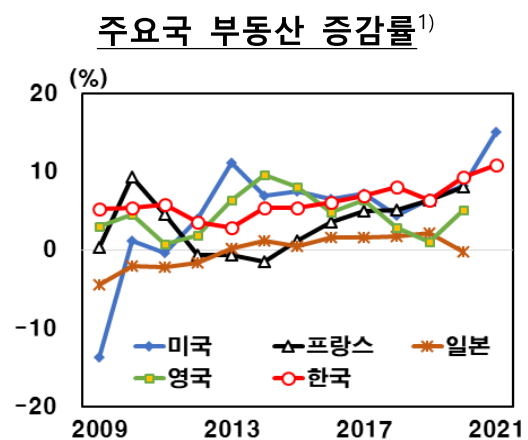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은 영국, 프랑스 보다는 낮고 미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



주: 1) 부동산/비금융자산

2) 국가별 자산포괄범위, 추계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

자료: OECD, FRB



주: 1) 국가별 자산포괄범위, 추계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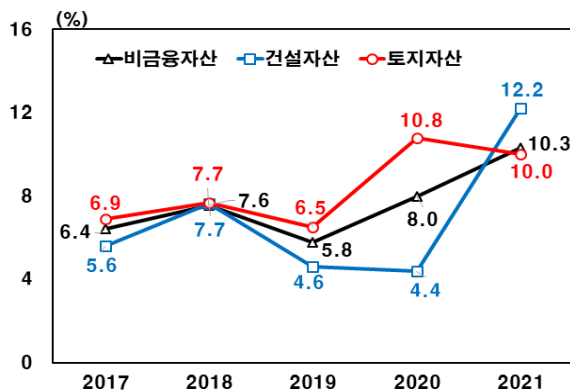
자료: OECD, FRB

4 생산자산 증가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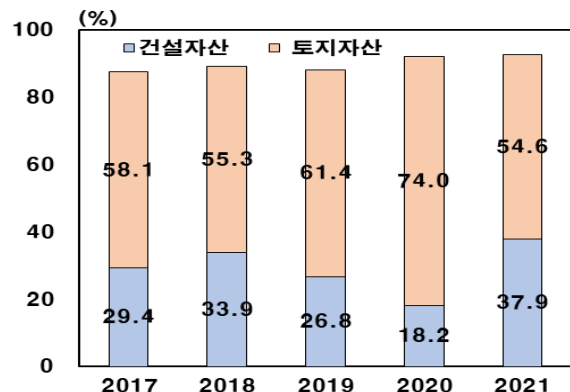
2021년중 비금융자산의 명목 증감률(전년대비)은 상승하였는데, 이는 비생산자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10.7% → +10.0%)한 가운데 생산자산이 건설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큰 폭 증가(+4.7% → +10.8%)한 데 따름

○ 비금융자산 증가에 대한 비생산자산의 기여율은 2020년대비 축소(2020년중 74.0% → 2021년중 54.7%)되었고, 생산자산이 확대(26.0% → 45.3%)

주요 자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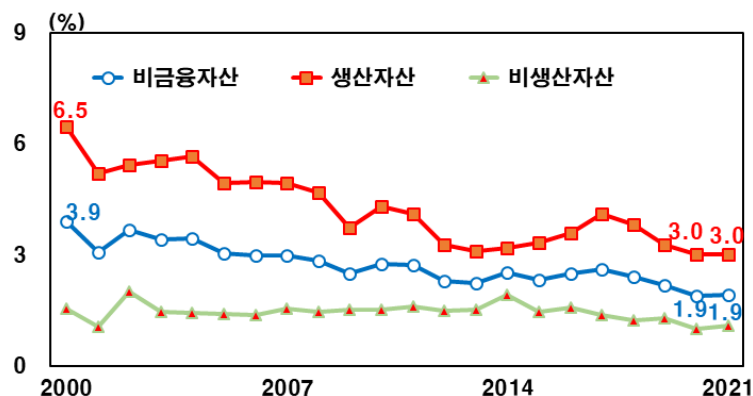
비금융자산 증가에 대한 기여율



한편, 2021년중 비금융자산 실질 증감률(2015년 연쇄가격 기준)은 전년과 동일한 1.9%를 기록

○ 생산자산은 설비자산 증가세가 확대(+3.0% → +4.3%)되었으나 건설자산이 소폭 둔화(+2.8% → +2.5%)되며 전년 수준을 유지(+3.0% → +3.0%)

비금융자산 실질 증감률



5 2021년 국민순자산 증가는 명목보유손익에 주로 기인

- 2021년중 국민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1,209조원 → +2,030조원)한 것은 거래요인에 의한 증가(+317조원) 보다는 자산가격 변동 등 거래외요인에 의한 결과(+1,713조원)
- 거래요인에 의한 증감은 전년보다 소폭 확대(+305조원 → +317조원)된 반면, 비금융자산 명목보유손익(+960조원 → +1,372조원)과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157조원 → +164조원)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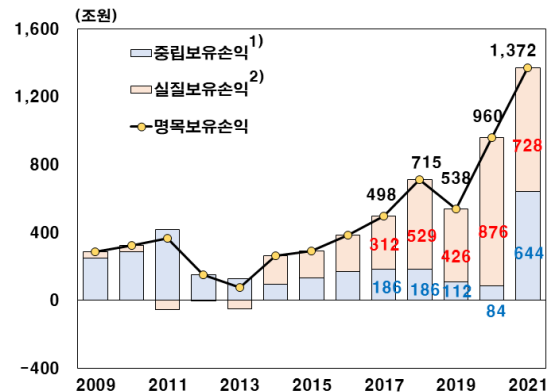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단위: 조원, %)

	2020 ^P	2021 ^P
순자산 증감	1,209.3	2,029.9 (100.0)
거래에 의한 증감	304.6	317.1 (15.6)
비금융자산 순취득	216.5	229.2 (11.3)
금융자산 순취득	88.1	87.9 (4.3)
거래외 증감	904.7	1,712.8 (84.4)
자산량기타증감	102.1	177.2 (8.7)
명목보유손익	960.1	1,371.6 (67.6)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157.5	164.0 (8.1)

주: ()내는 순자산 증감에서 해당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비금융자산의 명목보유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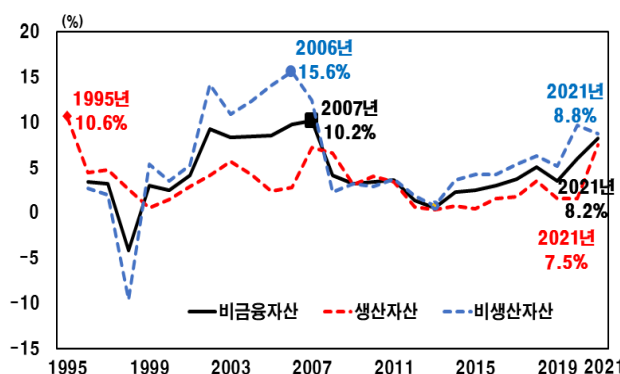
주: 1) 자산가격이 일반물가수준과 동일하게 상승했다고 가정시 손익
2) 명목보유손익 - 중립보유손익

- 이와 같이 명목보유손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건물과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2021년중 비금융자산 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8.2%)* 한데 기인

* 2007년(+10.2%)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

- 비생산자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8.8%)을 유지한 가운데, 생산자산 가격도 건설자산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1.6% → +7.5%)

비금융자산 가격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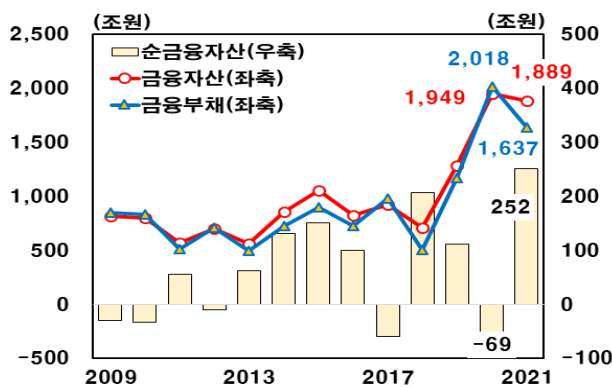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P	2021 ^P
생산자산	1.7	3.5	1.6	1.6	7.5
건설자산	1.9	4.4	1.7	1.6	9.4
설비자산	0.4	0.6	2.0	1.0	-0.1
자산량기타증감	1.5	2.8	2.4	2.5	3.9
재고자산	2.9	0.0	-1.5	1.8	4.9

⑥ 순금융자산의 큰 폭 증가

□ 2021년중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은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52조원(+47.5%) 증가

- 금융자산은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645조원), 현금 및 예금(+434조원)을 중심으로 1,889조원 증가(+9.8%)
- 금융부채는 국내 비금융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468조원)를 중심으로 1,637조원 증가(+8.8%)했지만, 금융자산 증가에 비하여 미달

순금융자산 증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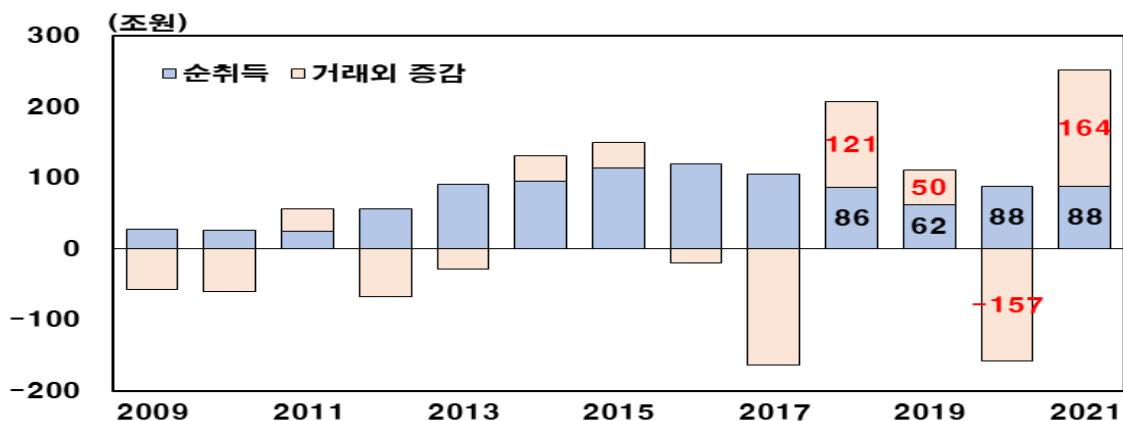
국내외 주가 등락률

	(단위: %)		
	2019	2020	2021
미국(DJIA)	22.3	7.2	18.7
미국(NASDAQ)	35.2	43.6	21.4
유로지역 ¹⁾	24.8	-5.1	21.0
한국(KOSPI)	7.7	30.8	3.6

주: 1) EURO Stoxx 50 Index
자료: 미국 DJIA, NASDAQ, EURO Stoxx Index, 한국 KOSPI

□ 2021년중 순금융자산 증가를 순취득(거래요인)과 거래외 증감(비거래요인)으로 분해하면, 순취득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국내외 주가 변동 등에 따른 거래외 증감 항목이 증가 전환

순금융자산 증감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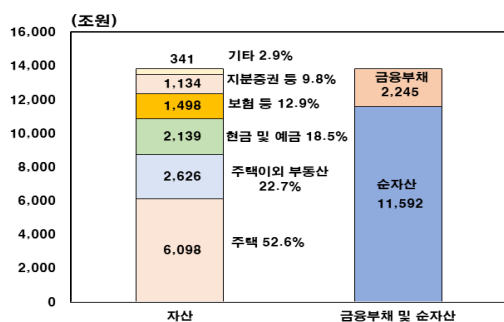


㉞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세 유지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2021년말 순자산이 1경 1,592조원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제도부문(전체 국민순자산의 58.5%)이며,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 유지(+12.4% →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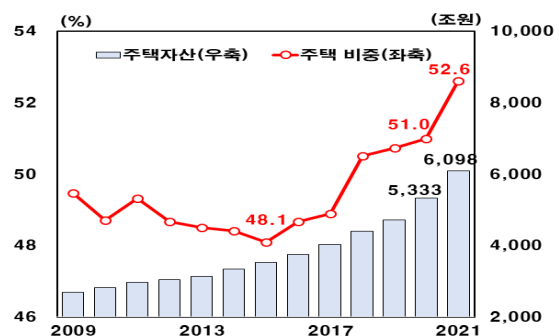
○ 가계부문의 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이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주택 이외 부동산 22.7%, 현금 및 예금 18.5% 순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산·부채 구성



주: 2021년말 기준이며, 비중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대비

주택자산 금액 및 비중



주: 비중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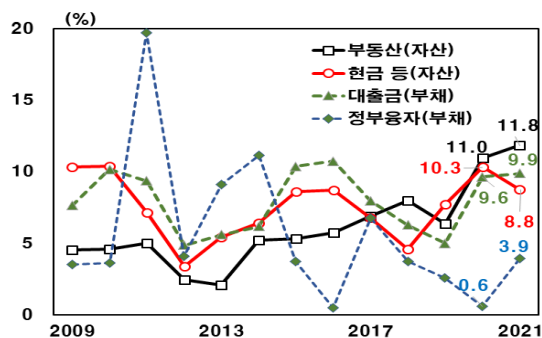
2021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이 증가(+10.8%)한 것은 실물 및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

○ 자산항목은 주택 등 부동산, 현금 및 예금 위주로 증가하였으며, 금융부채는 대출금과 정부융자를 중심으로 증가

○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부동산 자산 배율은 각각 10.0배 및 7.6배로 전년(9.5배 및 7.1배)에 비해 상승

*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계본원소득에 순이전소득과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금액

세부항목별 증감률



PGDI대비 가계 주요 자산 배율

